

한국가스공사 LNG 수송합작사 10월 선정

신규건조 LNG 전용선 4척 운영관리선사

사업참가 신청서 제출 9월27일까지 제출

한국가스공사가 함께 LNG 수송회사를 설립할 선사를 10월 6일 선정한다.

한국가스공사는 7월29일 공사 1층 세미나실에서 '신규건조 LNG 전용선 4척 운영·관리선사 선정 및 합작 LNG 수송회사 설립'을 위한 설명회를 갖고, 계약이행 능력 평가와 사업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10월 6일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사업참가자격은 외항화물 운송 사업자로 등록하고 외항해상화물 운송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국내선사로서 가스공사로부터 계약이행능력 평가결과 적합통지를 받은 선사이다.

계약이행능력 평가 신청서 접수는 8월22일 17시까지고 계약이행능력 평가 결과 통보는 9월1일이다. 그 후 이루어지는 사업참가 신청서 제출은 9월 27일 17시까지, 사업제안서 제출은 10월4일 17시까지이다.

사업참가 신청서 제출은 선사의 해운부문 및 조선부문 계약이행 능력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선사로서 사업제안서 제출시 선사는 조선소와 합의된 제안선가와 금융기관이 제안한 금융조건을 명기하여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적격자 선정기준은 선사의 해운부문 계약이행 능력과 선사의 조선부문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게 되며, 이중 기업의 안정성 및 건전성(40점), 선박의 건조 및 운영능력(30점), LNG선 운항 기술능력(30점)을 평가하여 측정분야별 평가결과가 각각 배점한도의 50% 이상이고 종합평점이 60점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최소 2개사 최대 4개사를 선정하게 되며, 이들과 함께 LNG 수송회사를 설립해 4척을 발주해 2008년부터 연간 550만톤씩 들어오는 LNG 수입물량을 운반하게 된다.

발주될 선박의 기본 제원은 선형 Moss형 또는 Membrane형으로, 전장은 270m이상 298m이하로써, 형폭은 50m이하, 계획만재흘수는 11.3m이하, 화물탱크용량은 14만 5000m³(-163℃ 선적기준)이상이어야 한다. 속도는 20.3knot이고 건조 후 조선소의 해상 시운전에서 증명돼야 한다. BOG 발생량은 1일 0.15% 이하이고 12시간내 하역이 완료될 수 있어야 한다. 기술규격은 가스공사 제시 건조 선박 기본 사항을 만족하여 기존 국적 LNG(5~17호)과 동등이상의 기술 및 품질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박의 건조조건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로서 수송계약기간은 20년이다. 원리금 상환기간은 선박인도일로부터 20년이다.

